

2023년 교세보고에 따른 교세 보고 자료

(홈 페이지 게시용)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THE KOREA BAPTIST CONVENTION

일 러 두 기

- ☐ '2023년 교세 보고서'는 총회가 전국의 가입교회들이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가입교회 중에 2,534개(전체 3,135개) 교회가 제출하여 백분율 환산 시 80.83%이며, 112차(2022년) +1.06%, 111차(2021년) 보다는 -2.27% 각각 증감되었습니다.

- ☐ 본 통계는 총회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통계로서 교단의 교회와 기관, 위원회가 교단 발전을 위한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중요도를 생각할 때 좀 더 많은 교회가 정확한 통계를 제출하여주기를 기대합니다.

- ☐ 유의 사항
 -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하였으므로 통계표 내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통계는 제출교회의 기록에 의존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실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결과공표
 - 보도자료 : 침례신문(2024년 4월 6일 1518호 / 4월 13일 1519호)
 - 통계자료 : 총회 홈페이지(www.koreabaptist.or.kr)에 게시

□ 종합통계

- 교회 통계	5
- 목회자 통계	5
- 교인 통계	5
· 작년대비 교세 통계 변화	6
· 3년간 교세 통계 변화	6

□ 2023년 세부 통계 결과

1. 전체 목회자 및 담임목사 연령분포	7
표1 목회자 구분표	7
· 전체 목회자 분포율 / 전체 목회자 분포율(상세)	7
· 전체 목회자 성비율	8
· 남성 목회자 분포율	8
· 여성 목회자 분포율	8
표2 담임목회자 성별 / 연령별 현황표	9
· 성별 비율	9
· 70세 이상 담임목회자	9
· 담임목회자 연령별 분포 비교	10
· 남성 연령별 분포	10
· 여성 연령별 분포	10
· 분석	10
2. 재적/출석 교인수에 따른 교회분포	12
표3 재적/출석 교인수별 교회 분포표	12
표4 재적/출석 교인 수 연도별 분포	12
· 재적교인 성별 분포	13
· 출석교인 성별 분포	13
· 재적교인 수에 따른 교회 분포율	13
· 출석교인 수에 따른 교회 분포율	14
· 50명 미만 출석교회 비율	14
· 연도별 재적/출석 교인수 변화	14
· 연도별 재적교인에 따른 교회 수 변화	15
· 분석	15

목 차

3. 출석교인 연령별/성별 분포	16
표5 출석교인 연령별 분포표	16
· 출석교인 연령별 분포율 / 다음세대 연령별 분포율	16
· 2021 ~ 2023 연령별 출석교인 변화	17
· 2021 ~ 2023 다음세대 출석인원 변화	17
표6 출석교인 성별 분포표	18
· 출석교인 남녀 비율	18
· 출석교인 남녀 분포도	18
· 분 석	19
4. 재적 침례교인 및 수침자 수	20
표7 연도별 재적 침례교인 및 수침자 수 표	20
· 2023년 재적 침례교인	20
· 23년 수침자 수	20
· 연도별 재적침례교인 / 연도별 수침자 수	21
· 분 석	21
5. 재직 분포	22
표8 재 직 분 포 표	22
· 재 직 분 포 도	22
· 2023년 안수집사(호칭장로) / 2023년 집사(권사 포함)	22
· 분 석	23
6. 교회지역 분포 및 예배당 상황	24
표9 교회 지역 분포표 및 예배당 상황표	24
· 교 회 지 역 분 포 율	24
· 예 배 당 분 포 율	24
· 지역별 교회 예배당 상황	25
· 지역별 교회 자립도 구분	25
· 지역별 교회 수 / 총회 및 지방회 가입교회	26
· 분 석	26
7. 맺음말	28

종합통계

제출교회 2,534교회(80.83%)

2024년 3월 15일 기준

교회 통계



목회자 통계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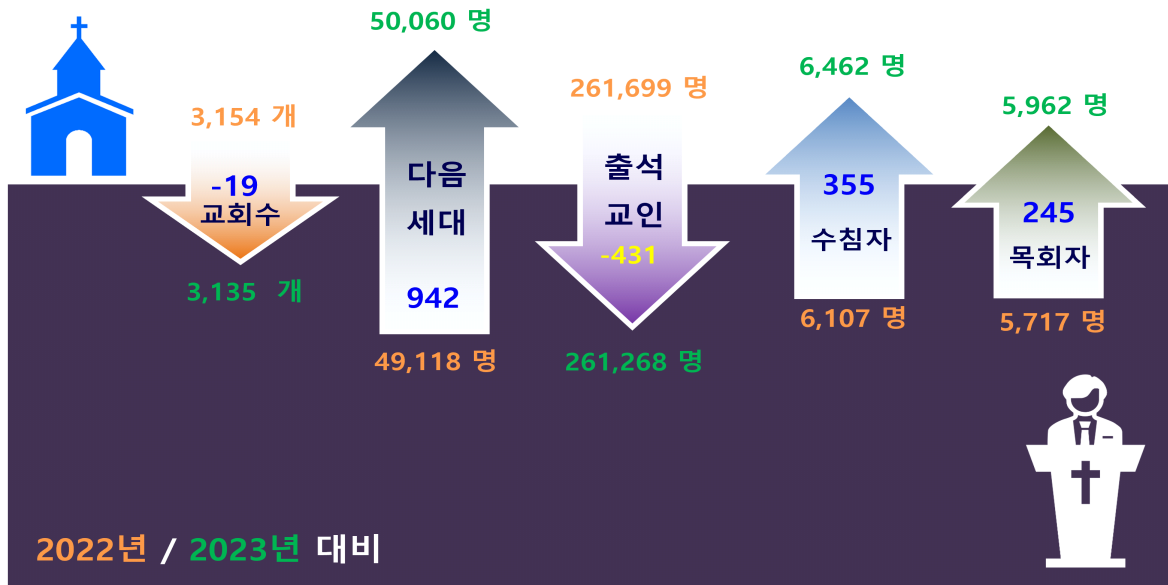
구분		남	여	합계
목사	담임목사	2,378	89	2,467
	공동담임	41	17	58
	원로(은퇴)목사	303	15	318
	부목사	893	86	979
	협동목사	442	84	526
	① 소계	4,057	291	4,348
전도사	담임전도사	37	27	64
	전임전도사	433	307	740
	파트전도사	465	345	810
	② 소계	935	679	1,614
합계(①+②)		4,992	970	5,962

교인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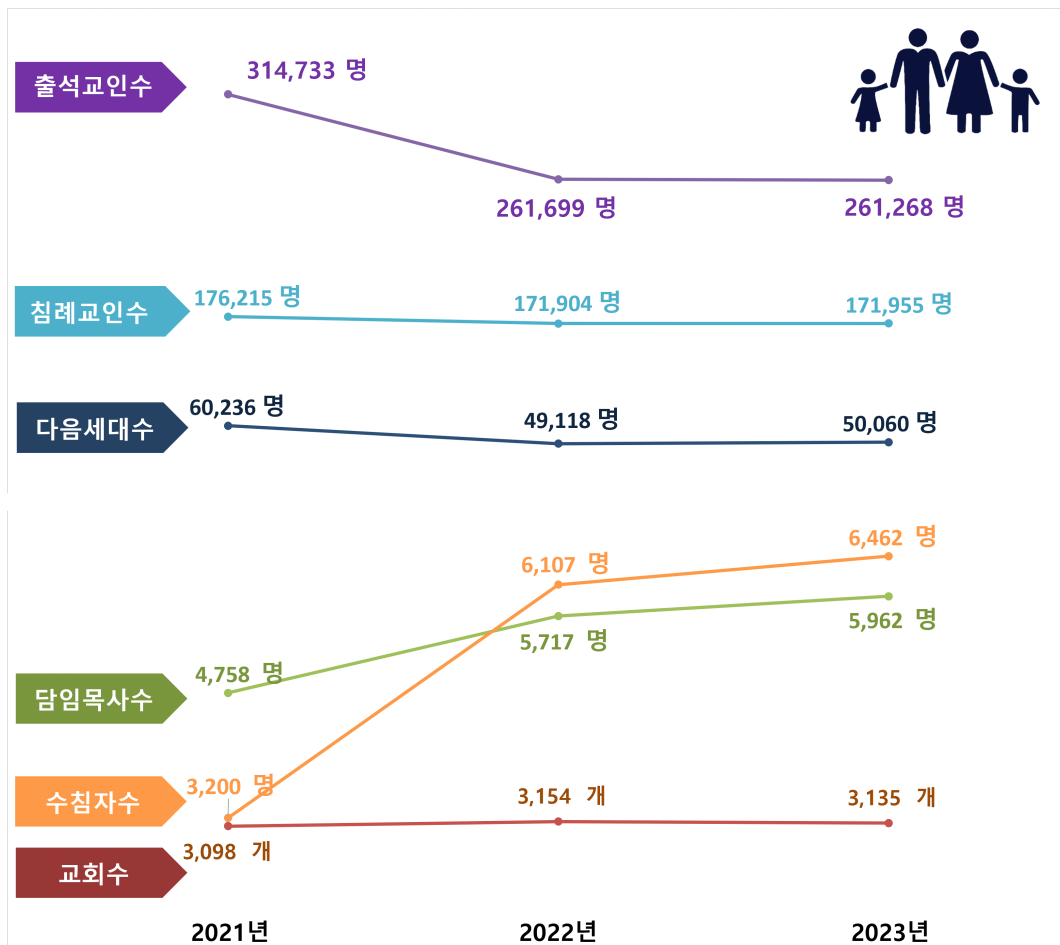
단위:명

구분	남	여	합계
재적교인	131,527	181,403	312,930
출석교인	111,953	149,315	261,268
재적침례교인	67,968	103,987	171,955
2023년 수침자	2,811	3,651	6,462
안수집사(호칭장로)	5,529	2,390	7,919
집사(권사포함)	27,952	55,278	83,230

작년 대비 교세 통계 변화



3년간 교세 통계 변화



2023년 세부 통계 결과

1. 전체 목회자 및 담임목사 분포(성별/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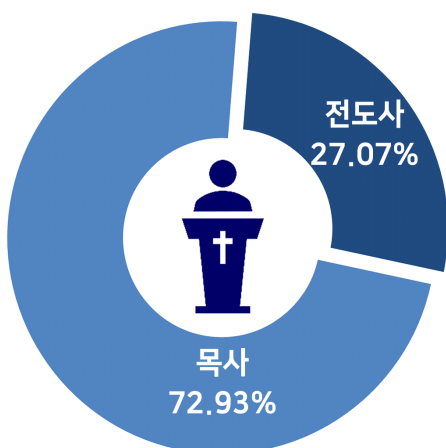
목회자 구분					
(단위: 명)					
구분		남	여	합계	백분율
목사	담임목사	2,378	89	2,467	41.38%
	공동담임	41	17	58	0.97%
	원로(은퇴)목사	303	15	318	5.33%
	부목사	893	86	979	16.42%
	협동목사	442	84	526	8.82%
	소계	4,057	291	4,348	72.93%
전도사	담임전도사	37	27	64	1.07%
	전임전도사	433	307	740	12.41%
	파트전도사	465	345	810	13.59%
	소계	935	679	1,614	27.07%
합계		4,992	970	5,962	100.00%

표1. 목회자 구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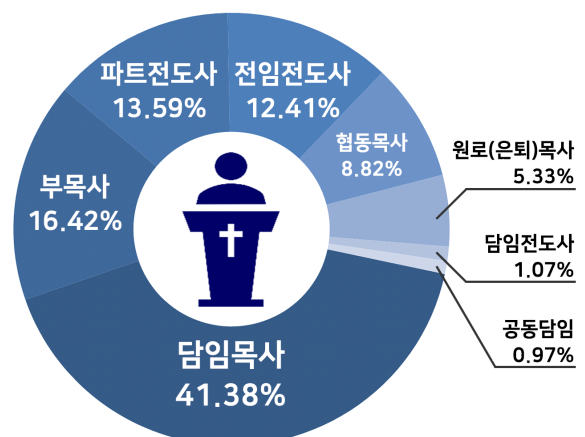
□ (전체목회자분포) 2023년 전체 목회자 5,962명 가운데 목사가 4,348명(72.93%), 전도사가 1,614명(27.07%)이다. 전체 목회자 가운데 목사는 증가, 전도사는 감소하였다.

○ 전체 목회자 전년 비: 목사 72.8% / 전도사 27.2%

전체 목회자 분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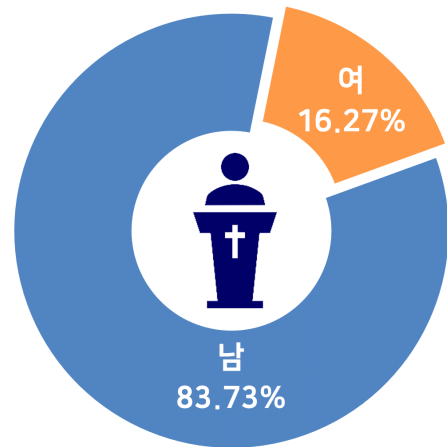


전체 목회자 분포율(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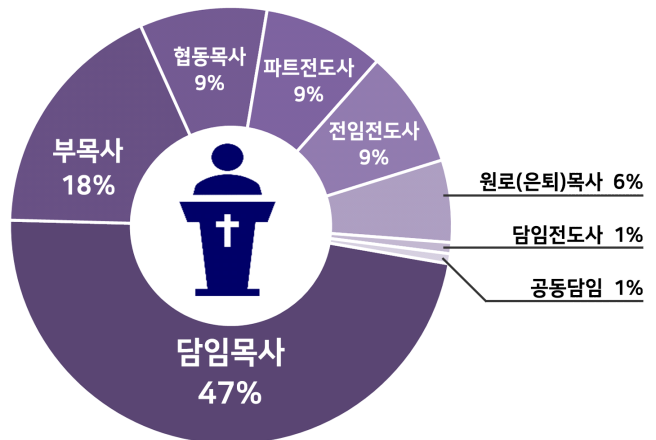
전체 목회자 성비율

- (성비율) 전체 목회자 가운데 남성 4,992명 / 83.73%, 여성은 970명 / 16.27%이다. 전년 대비 전체 목회자가 상승하였고 남성보다는 여성의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도 성 비율: 남성 85.27%, 여성 14.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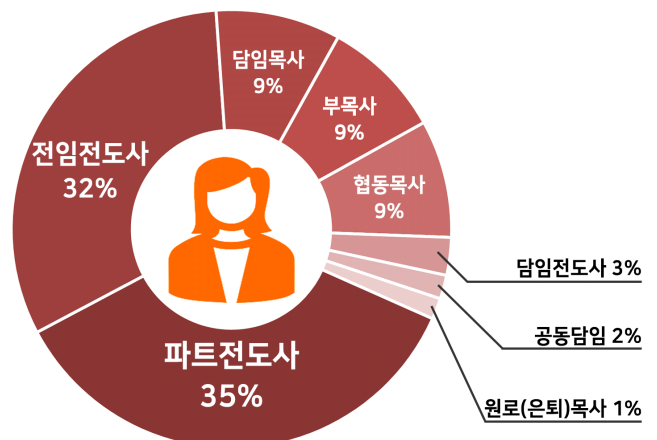
남성목회자 분포율

- (남성목회자분포율) 남성 4,992명 가운데 목사는 4,057명(81.27%), 전도사는 935명(18.73%)이다.
- 전년도 남성 목회자 비율: 목사 3,916명(80.33%), 전도사 959명(19.67%)



여성목회자 분포율

- (여성목회자분포율) 여성 목회자 970명 가운데 목사가 291명(30%)이고, 전도사는 679명(70%)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0.78% 목사는 늘고 전도사는 줄었다.
- 전년도 여성 목회자 수: 목사 246명(29.21%), 전도사 596명(70.78%)



담임목회자 성별/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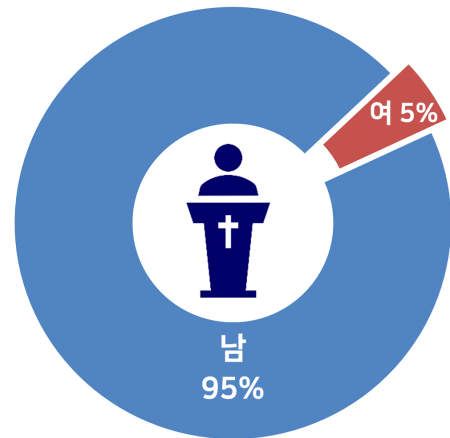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남	여	계	비고
30-39세	39	1	40	70세 미만 (87.95%)
40-49세	346	10	356	
50-59세	855	47	902	
60-69세	923	56	979	
70-79세	267	18	285	70세 이상 (12.05%)
80세 이상	26	1	27	
합계	2,456	133	2,589	

표2. 담임목회자 성별/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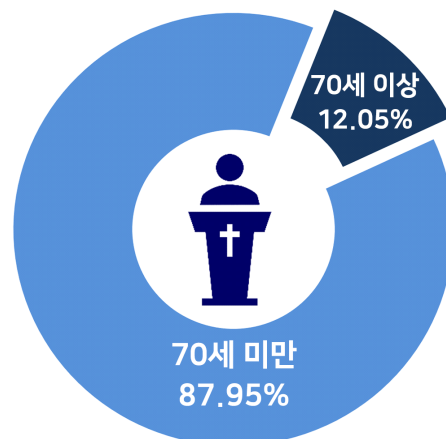
성별 비율

- (담임목사성별비율) 남성 95%, 여성 5%. 여성 담임 목사 비율이 증가하였다.
- 전년도 담임목사 성별 비: 남성 95.7%, 여성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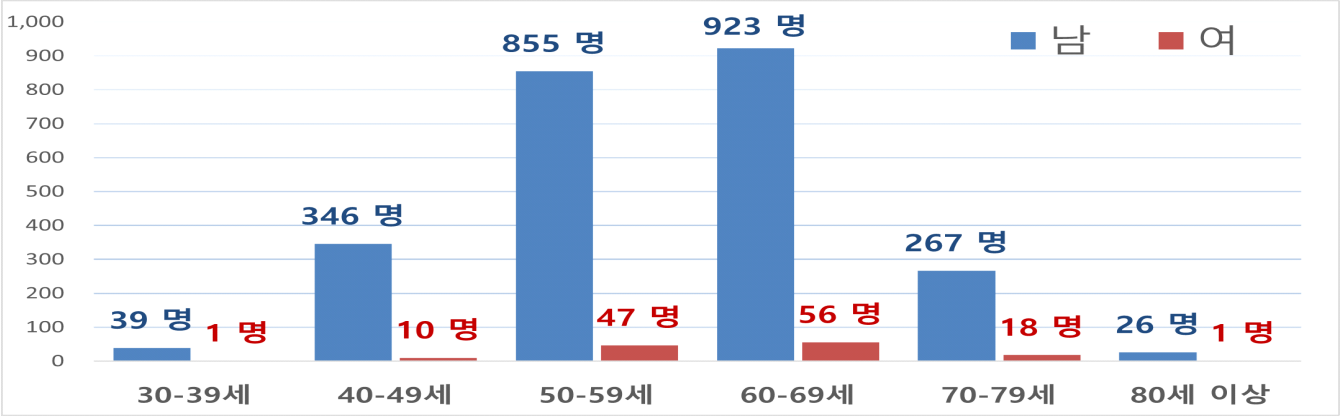
70세 이상 담임목회자

- (70세이상담임목사) 70세 이상 담임 목회자의 경우는 312명(12.05%)으로 전년 대비 0.5% 줄었다.
- 전년도 70세 이상 담임목사 : 326명 / 13%



□ (담임목회자연령별분포비교) 여성의 경우 60대 이상이 75명(56.4%)이다. 그런데 연령을 50대 이상으로 하게 되면 122명(91.7%)이다. 남성과 비교하면 60대 이상 1,216명(49.5%), 50대 이상 2,071명(84.3%)으로 나타난다. 이는 60대 이상은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이 6.9%, 50대를 포함하면 7.4%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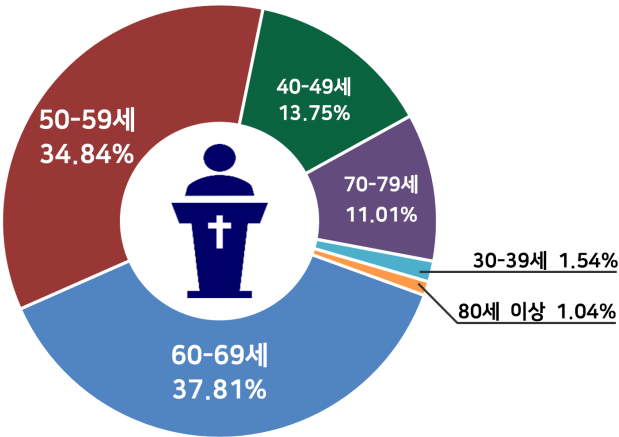
담임목회자 연령별 분포 비교



남성 연령별 분포

□ (담임목회자연령별분포-남성) 연령별 분포는 60대(37.81%), 50대(34.84%), 40대(13.75%)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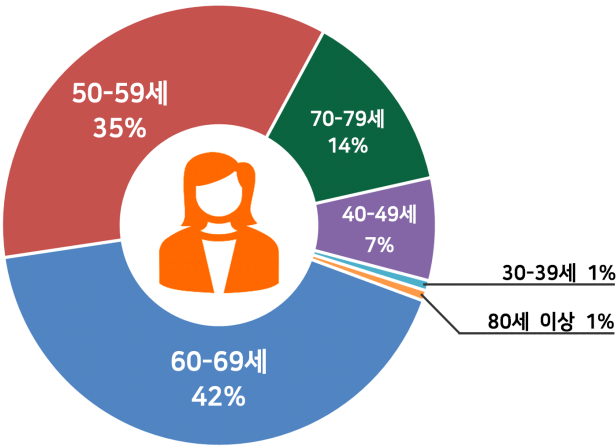
○ 전년도 분포 : 60대(38.69%), 50대(34.82%), 40대(12.37%)



여성 연령별 분포

□ (담임목회자연령별분포-여성) 연령별 분포는 60대(42%), 50대(35%), 40대(7%) 순이다.

○ 전년도 분포 : 60대(45%), 50대(32%), 40대(7%)



지난해 8월부터 은혜재단의 연금 지급 시작과 함께, 최근 **만 70세**를 넘은 담임 목회자들의 은퇴와 그에 따른 교회 폐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런데도 담임 목회자 2,589명 중 **60대 이상**이 1,290명(**49.83%**)에 해당하며, **70대 이상**도 312명(**12.1%**)에 달해 교회 **리더십의 고령화 문제**가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40대 이하** 담임 목회자는 396명(**15.3%**)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의 장기적 **안정성과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젊은 세대의 목회자 리더십 **참여의 촉진**과 다양한 세대 간의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통계¹⁾에 보면 사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부 교역자(부목사+전도사)들 모두 사례비보다는 ‘담임목사의 성품’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젊은 인재들이 다양한 목회자의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신세대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서 부 교역자가 목회 현장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다음 세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부족할 경우, 한국 사회의 현상과 같이 향후 10년 이내에 교단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상할 것임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한편, **여성 목회자**의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목회자 5,962명 중 970명(**16.3%**)을 차지하는 등, 여성 목사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담임목사를 포함한 여성 목사는 291명으로 **전체 목회자의 4.9%**에 불과하다. 이는 여성 목회자의 활동이 여전히 결혼, 출산, 육아 등 가정적 요소에 의해 제한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함을 드러낸다. 우리 침례교단은 제103차 정기총회에서 젊은 **여성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여성 목사인준을 결의**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현재, **60세 이상** 여성 담임 목회자 비율이 여성 담임 목회자 전체의 **56.4%(남성은 49.51%)**에 이르고, **30~40대** 여성 담임목사 비율은 **8.3%(남성은 1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결의했던 본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젊은 여성 목회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반면, 여성 목회자 중에서는 **전도사의 비율이 70.0%**로 상당히 높아,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 목회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더 활동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과 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마련이 시급하다.

교회 내에서 여성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여성의 사역과 참여**는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다양한 사역을 통해 교회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의 교회 내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1) 목회 데이터 연구소, 『한국교회 전도사 사역 실태』, (넘버스 216호).

2.

재적/출석 교인 수에 따른 교회 분포

재적/출석 교인수별 교회분포

(단위: 개)

범위	재적				출석				비고
	2021년	2022년	2023년	백분율	2021년	2022년	2023년	백분율	
무응답	56	70	55	2.17%	4	35	37	1.46%	73.44%
1-10 명	521	529	510	20.13%	507	559	528	20.84%	
11-20 명	520	529	553	21.82%	575	538	545	21.51%	
21-30 명	315	295	326	12.87%	349	326	336	13.26%	
31-40 명	244	236	220	8.68%	265	225	246	9.71%	
41-50 명	187	175	163	6.43%	171	193	169	6.67%	
51-100 명	373	343	349	13.77%	373	326	362	14.29%	14.29%
101-200 명	177	166	185	7.30%	192	177	165	6.51%	12.27%
201-500 명	114	107	106	4.18%	87	91	96	3.79%	
501-1000 명	36	32	32	1.26%	23	19	20	0.79%	
1,000 명 이상	32	34	35	1.38%	29	27	30	1.18%	
합계	2,575	2,516	2534		2,575	2,516	2534		

표3. 재적/출석 교인수별 교회 분포표

재적 50명 미만	72.10%
출석 50명 미만	73.44%

재적/출석 교인수 연도별 분포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남	여	합계
재적	350,676	346,518	131,527	181,403	312,930
출석	314,733	261,699	111,953	149,315	261,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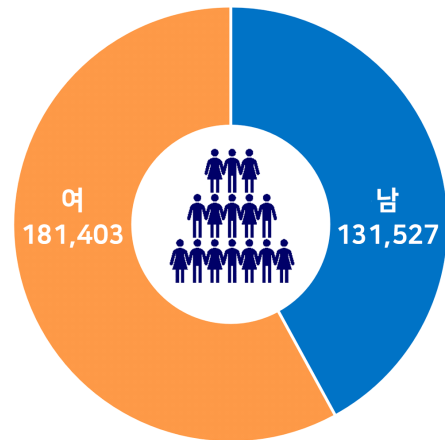
표4. 재적/출석 교인수 연도별 분포

재적교인 성별 분포

(단위: 명)

□ (재적교인성별분포) 성별분포는 남성은 131,527명 42%, 여성은 181,403명 58%이다. 남녀합 312,930명이다.

◦ 재적교인 성별 분포는 금년도부터 조사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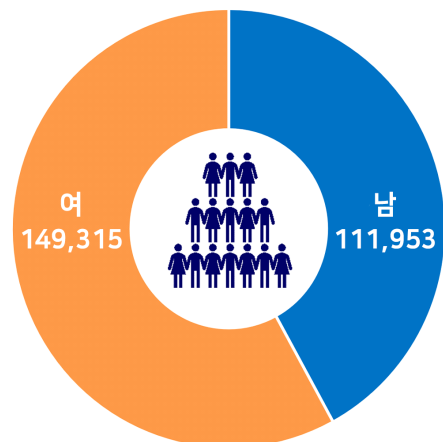


출석교인 성별 분포

(단위:명)

□ (출석교인성별분포) 성별 분포는 남성 111,953명 / 42.8%이며, 여성은 149,315명 / 57.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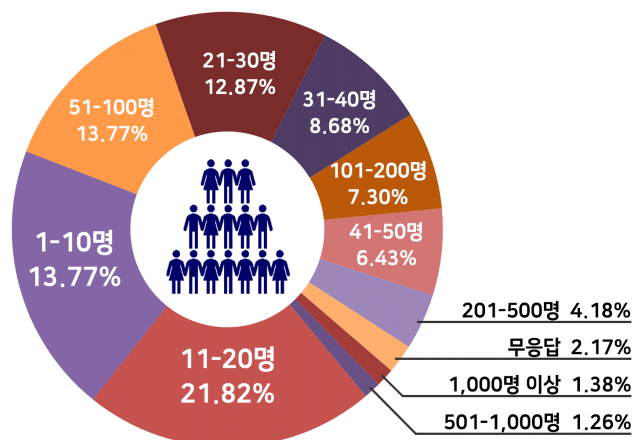
◦ 전년도 분포 현황 : 남성 112,502명, 여성 149,197명



재적교인 수에 따른 교회 분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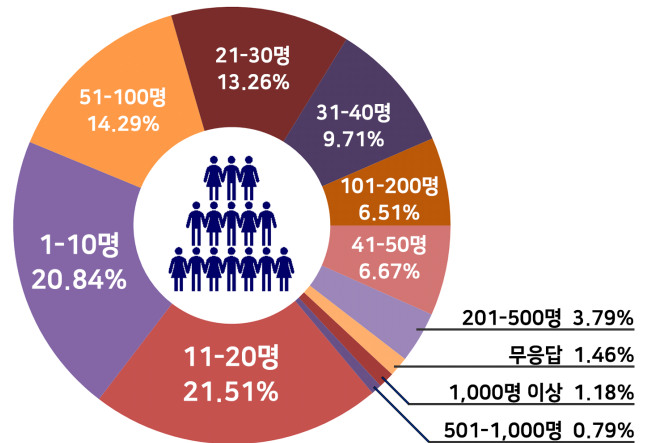
□ (재적교인수교회분포) 재적 교인 수에 따른 교회 분포율은 100명 이하 교회가 85.9%이다.

◦ 전년도 분포 현황 : 100명 이하 교회 86.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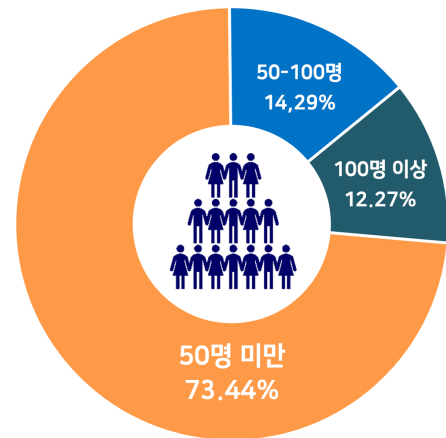
출석교인수에 따른 분포율

- (출석교인수교회분포) 출석 교인 수에 따른 분포율을 종합해보면 100명 미만이 87.7%이다.
- 전년도 분포 현황 : 100명 이하 교회 87.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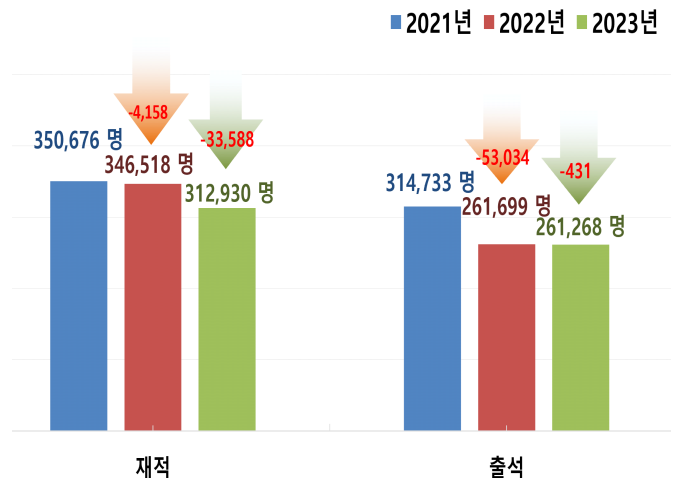
50명 미만 출석교회 비율

- (50명미만교회비율) 출석인원 50명 미만은 73.44% (-1.12%)이다.
- 전년도 분포 현황 : 100명 이하 교회 7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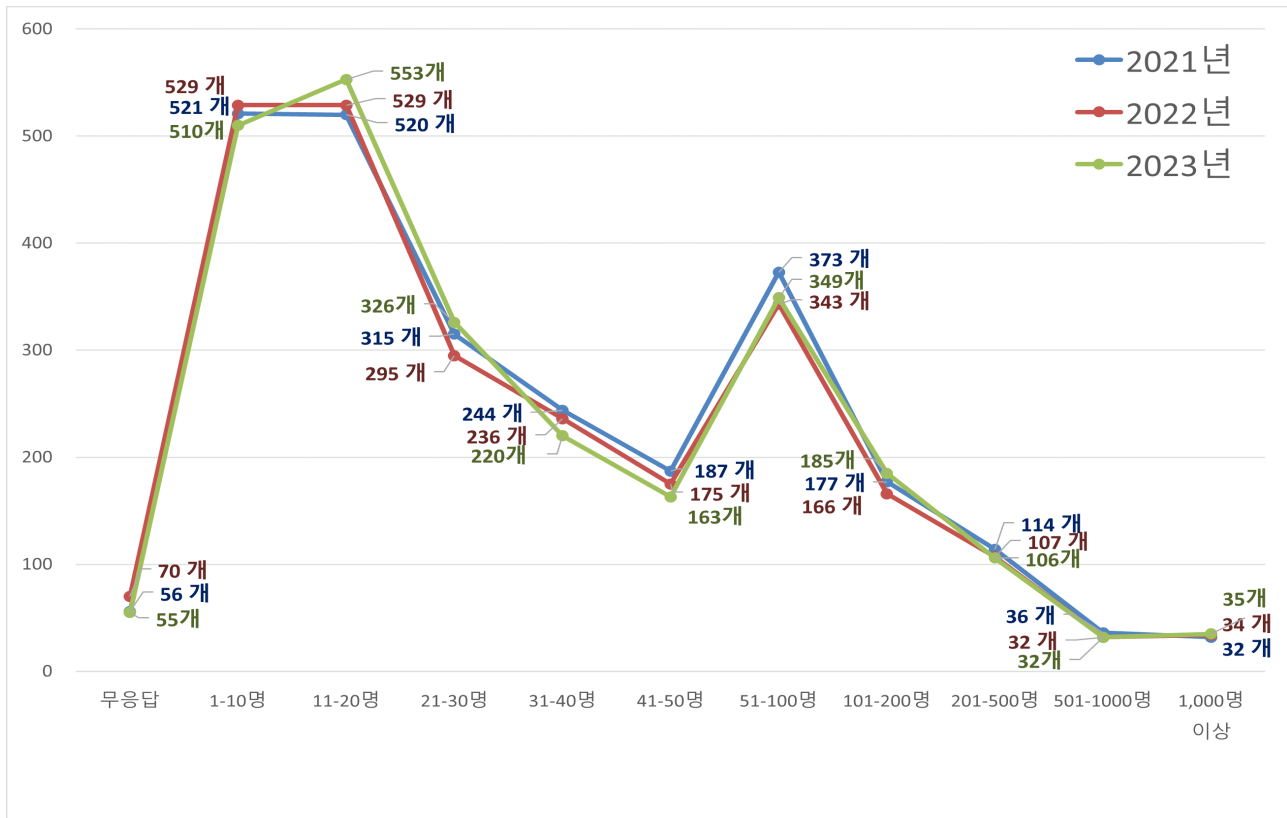


연도별 재적/출석 교인수 변화

- (연도별재적인원현황) 재적 및 출석 교인 수의 변화에서 2022년과 2023년의 감소율이 346,518명에서 312,930명으로 9.7%가 감소하였다. 반면 출석 교인 수의 변화는 261,699명에서 261,268명으로 0.16% 정도 감소하였다.



연도별 재적교인에 따른 교회 수 변화



분석

재적 교인 100명 이하의 교회가 전체 응답교회의 85.9%(출석 교인:87.7%)이고, 재적 교인 100명 이상을 보유한 교회는 14.1%(출석 교인:12.3%)에 불과하다. 특히 출석 교인 수가 50명 미만인 교회는 전체의 73.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교회의 규모와 성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또한, 재적 교인 수 100명 이하의 교회가 대다수(85.9%)를 차지함에 따라, 이들 교회가 지속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과 교육을 지원받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성도 수의 증가와 교회 활동 증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 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지난 3년 간의 교인 수 변화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와 인구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현재는 교회가 출석하는 성도의 수를 늘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전도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출석 교인 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흥미로운 부분은 20명~30명대와 200명 이상이 출석한 교회의 수는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 원인과 이유를 자세히 분석하여 부흥의 모델을 전략화하여 비슷한 상황의 교회들이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단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는 개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자발적인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또한 총회와 기관들 그리고 위원회와 지방회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출석교인 연령별/성별 분포

출석교인 연령별 분포

(단위: 명)

구분	남자			여자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0-7세	9,744	4,448	4,836	8,956	4,767	4,952	18,700	9,215	9,788	3.75%
1-3학년	10,300	4,485	4,540	11,033	4,910	4,962	21,333	9,395	9,502	3.64%
4-6학년		5,382	5,434		5,692	5,724		11,074	11,158	4.27%
중등부	9,906	5,155	5,212	10,297	5,235	5,261	20,203	10,390	10,473	4.01%
고등부		4,433	4,575		4,611	4,564		9,044	9,139	3.50%
20-29세	17,504	14,479	14,398	17,916	15,301	14,895	35,420	29,780	29,293	11.21%
30-39세	18,137	14,346	14,227	20,189	17,497	17,274	38,326	31,843	31,501	12.06%
40-49세	20,323	16,903	16,489	28,145	23,349	22,937	48,468	40,252	39,426	15.09%
50-59세	20,655	17,534	16,962	30,424	26,100	25,656	51,079	43,634	42,618	16.31%
60-69세	17,311	14,168	14,076	25,516	21,478	21,591	42,827	35,646	35,667	13.65%
70세 이상	12,826	11,169	11,204	25,516	20,257	21,499	38,342	31,426	32,703	12.52%
합계	136,706	112,502	111,953	177,992	149,197	149,315	314,698	261,699	261,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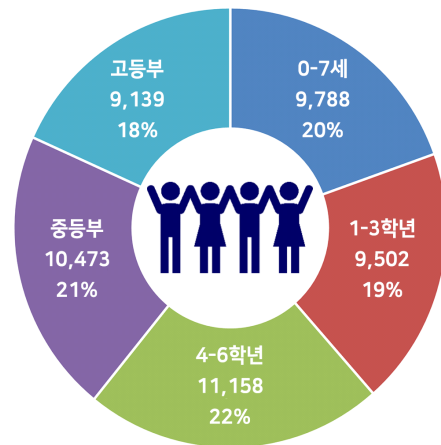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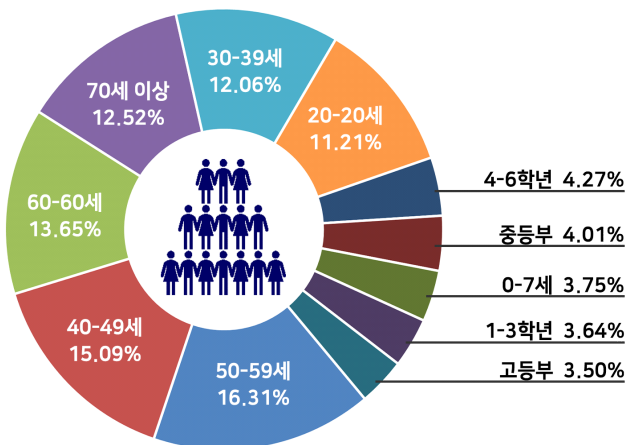
표5. 출석교인 연령별 분포표

□ (출석교인연령별분포) 출석 교인 연령별 분포율은 20세 이상은 평균 13.37%로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다. 반면에 20대 미만 세대는 평균 3.83% 출석률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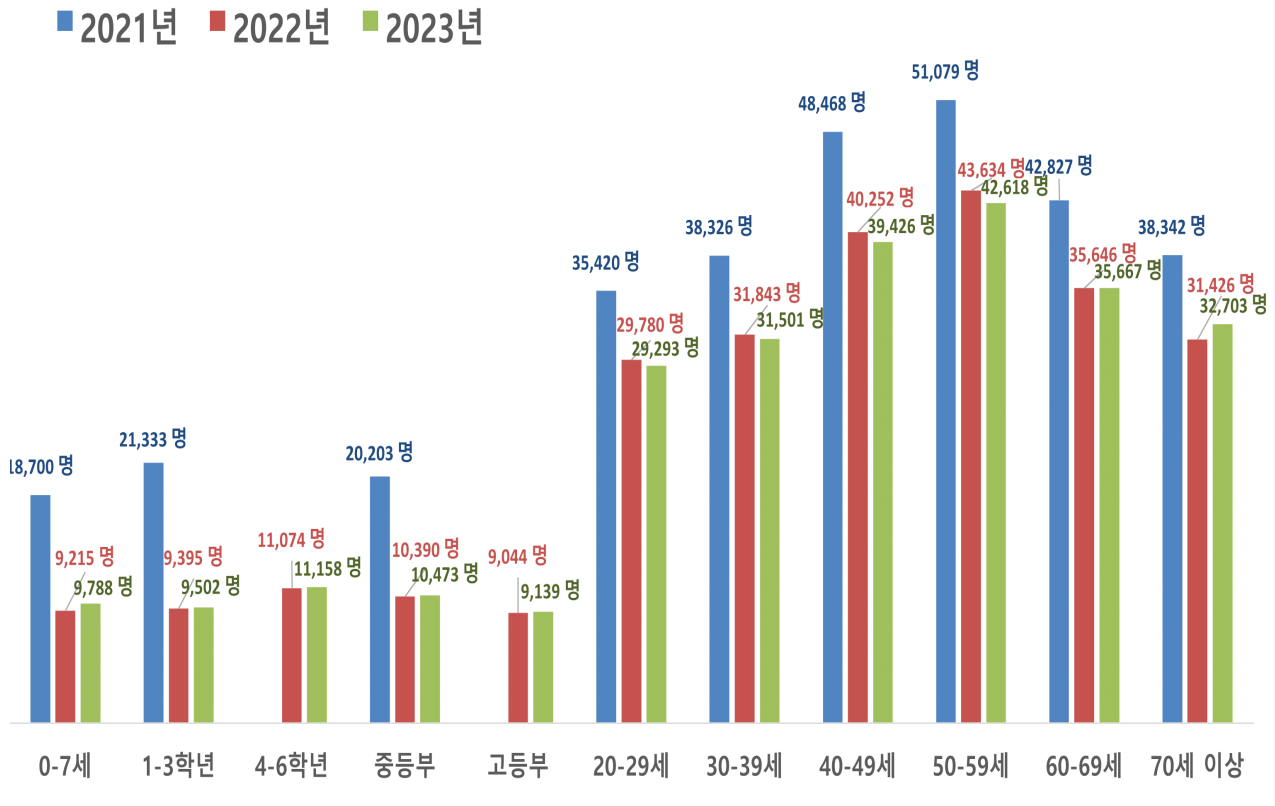
출석교인 연령별 분포

다음세대 연령별 분포율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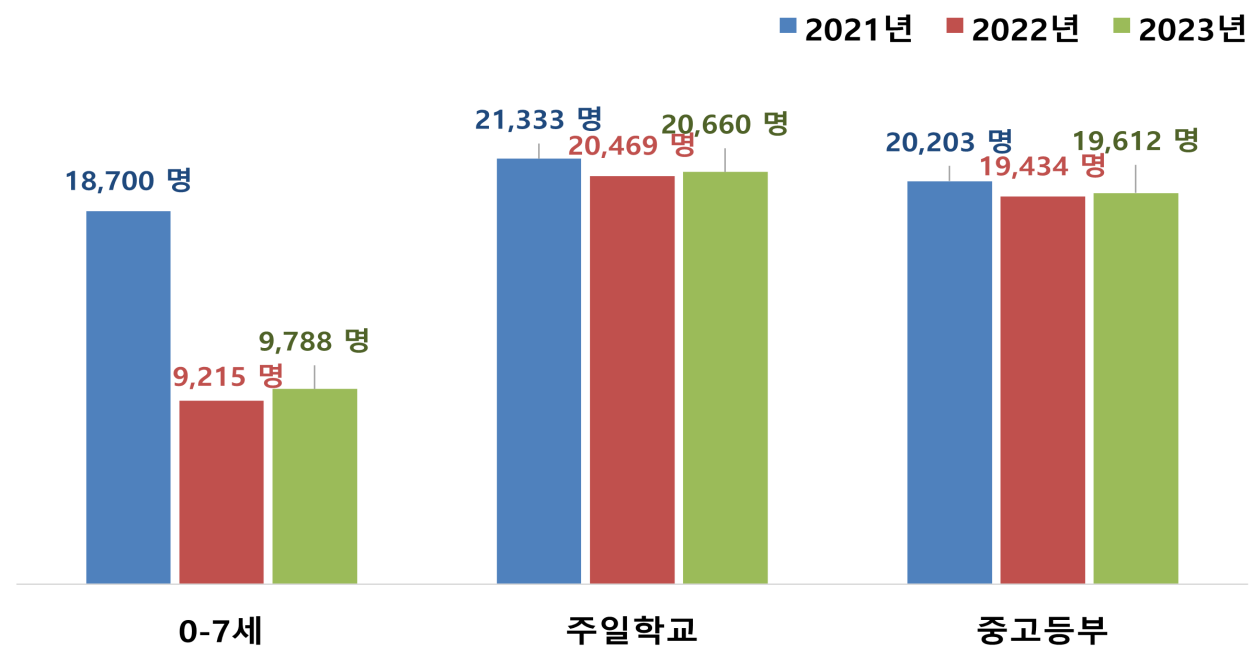


2021~2023 연령별 출석교인 변화



□ (다음세대출석인원변화) 다음 세대(0세~19세) 출석 인원 변화율에서는 전년 대비 전 연령대에서 교인 수가 증가하고 하였다.

2021~2023 다음세대 출석인원 변화



출석교인 성별분포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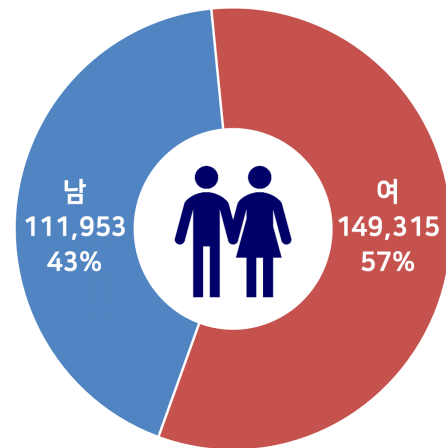
구분	남	여
출석교인	111,953	149,315
합계	261,268	

표6. 출석교인 성별 분포표

출석교인 남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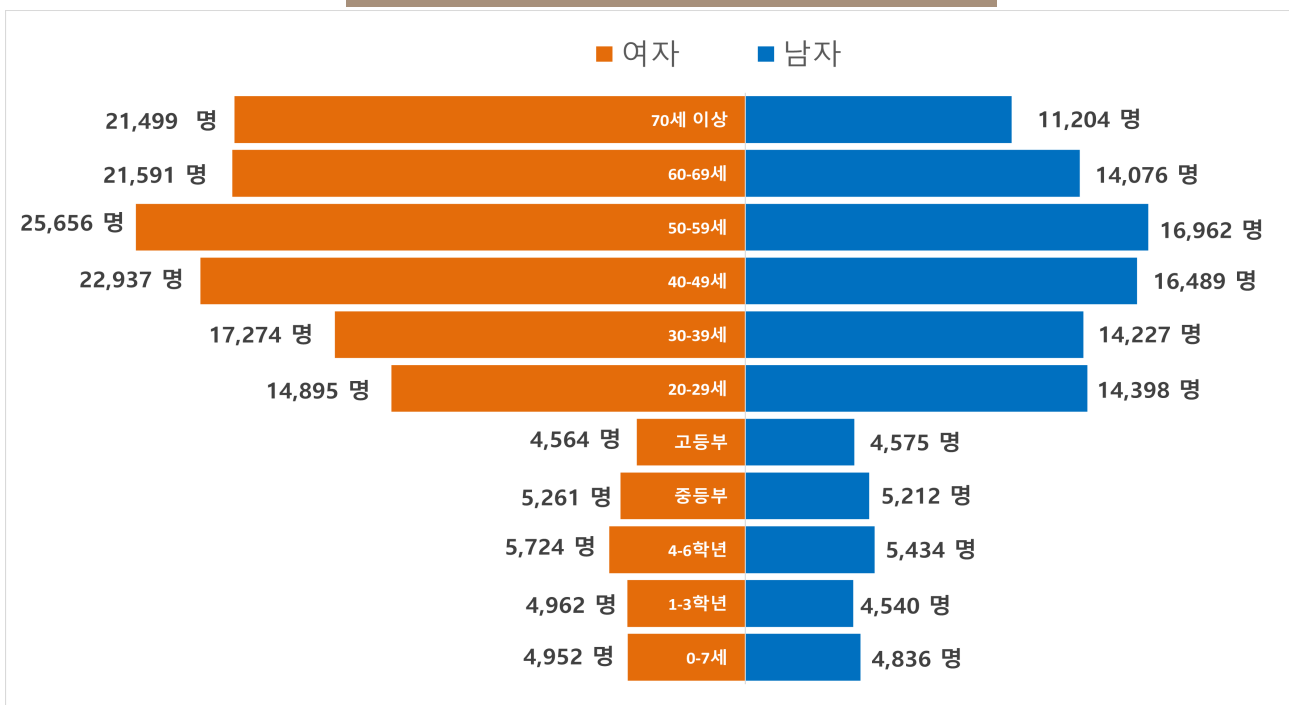
(단위: 명)

- (출석교인남녀비율) 출석 교인의 남녀 비율은 남성 111,953명(43%), 여성 149,315명(57%)이다.
 ○ 전년도 남녀비율 : 남성 112,502명(43%), 여성 149,197명(57%)으로 거의 변화 없음.



- (출석교인남녀분포도) 출석 교인 성별, 연령별 분포도이다. 남성은 40대 이상이 근소하게 감소하였다. 여성은 고등부부터 나이가 많을수록 감소하였다. 다음 세대에서는 고등부(여성)를 제외하고 다 증가하였다.

출석교인 남녀 분포도



교회 **출석 교인** 261,268명 중 **남성**은 111,953명(42.8%), **여성**은 149,315명(57.1%)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37,362명(14.3%) **많다**. **0세부터 19세**까지의 다음 세대는 50,060명으로 전체의 **19.2%**를 차지하며, 이들은 주로 **출석 인원이 500명 이상**인 대형교회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교회가 **성별 및 연령대**에 대한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다만 2023년도에 **다음 세대 교인** 수가 전년 대비 **942명(8.5%) 증가**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 10,176명(17.0%) 감소한 수치이나, 교단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들이 있다. **성장이 둔화**하는 시대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 교회들과 **협력**을 통해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마중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단에 속한 **장년 성도**들의 연령분포는 매우 **균일**하다. 그에 비하면 유초등부와 중고등부는 턱없이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은 2015년 이후 8년째 신생아 출산율은 내림세다. 그리고 2019년 11월 인구의 자연 감소(출생아 수 < 사망자 수)가 4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해(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함으로 국가 소멸 위기감까지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 각 부처에서 더욱 다양한 해결책들을 내놓기 위해 안간힘을 다 쓰고 있다. 마찬가지로 교단도 **저출산** 그리고 **다음 세대 전도**를 위한 다양한 **전략**(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체계의 개발 등)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할 때이다.

또한 사회 여러 분야에서 **액티브시니어**²⁾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액티브시니어 세대의 부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국가적 현상이며, 시대적 흐름이다. 이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현시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액티브시니어의 적극적인 삶의 태도와 다양한 활동은 모든 세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앞으로도 그 역할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도 이들이 사역에 **참여**를 위한 **관심과 양육**을 위한 **시도**들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2) 일본액티브시니어협회(www.nihon-asa.org)의 정의에 따르면, 액티브 시니어란 65~75세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정년퇴직 후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으며, 노인으로 취급하기에는 좀 이른 세대를 말한다.

4.

재적 침례교인 및 수침자 수

연도별 재적침례교인 및 수침자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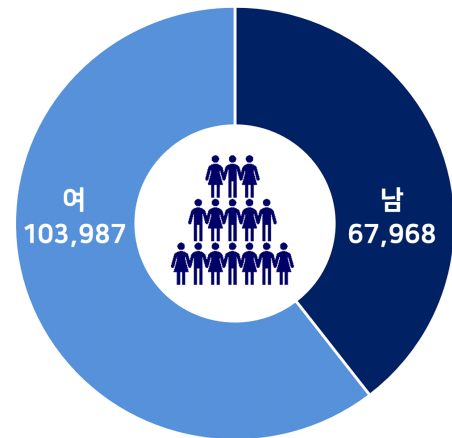
구분	남			여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침례교인	69,176	67,154	67,968	107,039	104,750	103,987	176,215	171,904	171,955
수침자 수	1,391	2,532	2,811	1,809	3,575	3,651	3,200	6,107	6,462

표7. 연도별 재적 침례교인 및 수침자 수

2023년 재적침례교인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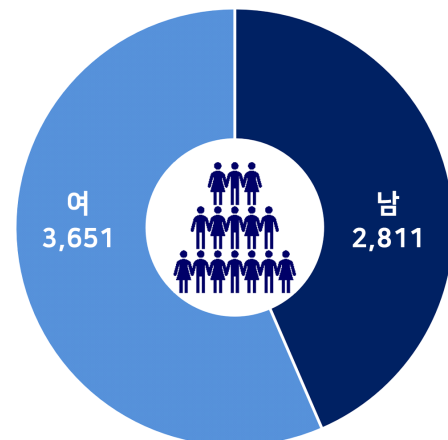
- (재적침례교인) 2023년 재적 침례교인의 수는 총 171,958명(남성 67,968명, 여성 103,987명)이다.
- 전년도 재적 침례교인: 총 171,904명(남성 67,154명, 여성 104,7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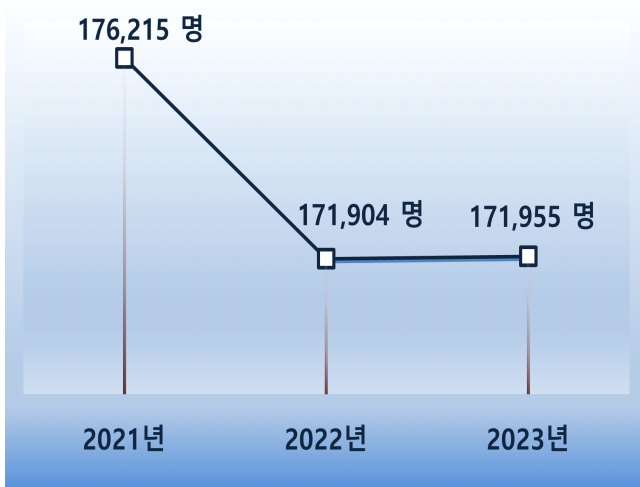
2023년 수침자 수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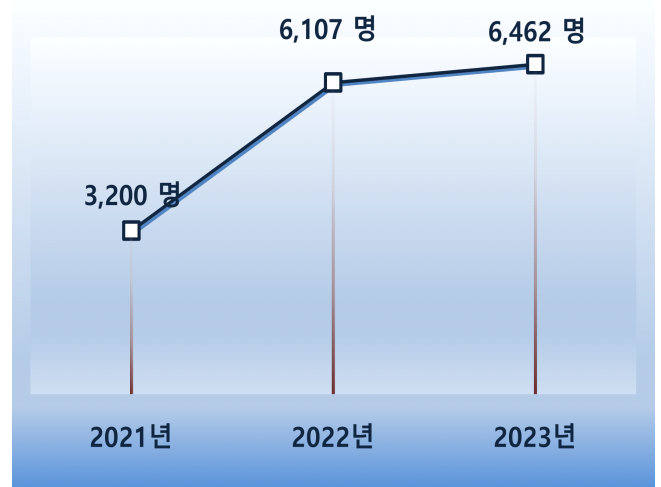
- (수침자수) 2023년 수침자 수는 총 6,462명(남성: 2,811명, 여성: 3,651명)이다.
- 전년도 수침자: 총 6,107명(남성: 2,532명, 여성: 3,575명)



연도별 재적 침례교인



연도별 수침자 수



분석

침례교인은 전체 재적 교인 312,930명 중 171,955명(54.9%)을 차지하며, 이 중 남성은 67,968명(39.5%), 여성은 103,987명(60.5%)으로 여성 교인의 비율이 더 높다. 2023년에는 총 6,462명의 교인이 침례를 받았으며, 이 중 남성은 2,811명(43.5%), 여성은 3,651명(56.5%)이다. 2021년 3,200명에서 시작해 2022년 6,107명으로, 그리고 2023년에는 소폭 증가한 수치를 보이며 침례교인 수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회복과 더불어 교단이 진행한 100만 바티스트 전도 운동의 성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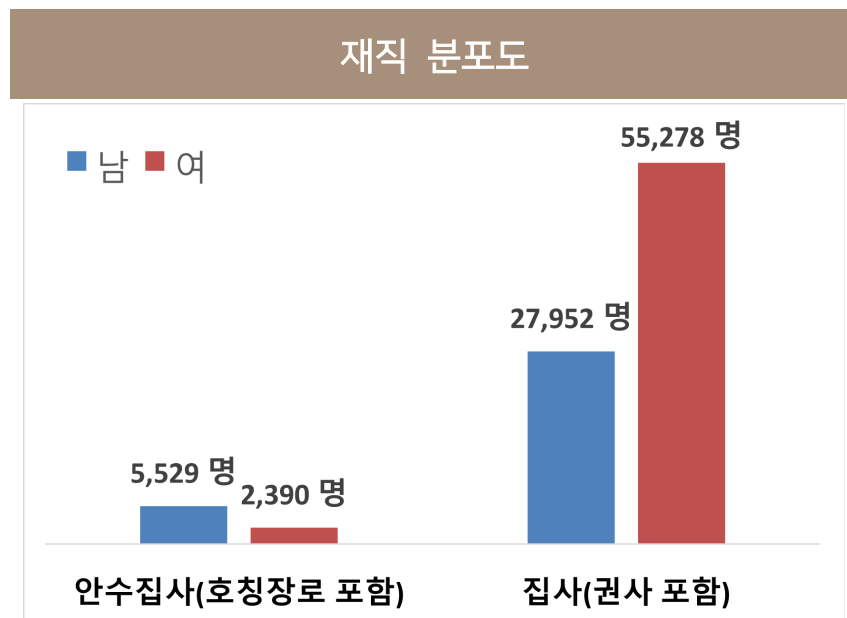
지난해 재적 교인 수를 기준으로 볼 때, 전체 교인 중 54.9%만이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침례를 받지 않은 45.1% 가운데 중등부 이하(15.7%)를 제외하면, 고등부 이상 29.4%는 침례를 받지 않은 교인이다. 이러한 상황은 침례교회가 비 침례자(혹은 세례자) 들을 위한 신앙 교육 및 침례교의 정체성에 대한 교육-침례교의 역사와 신앙을 포함-을 강화해 침례교인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침례를 받은 후에도 교인들이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리더십 개발이 필요하다.

5.

재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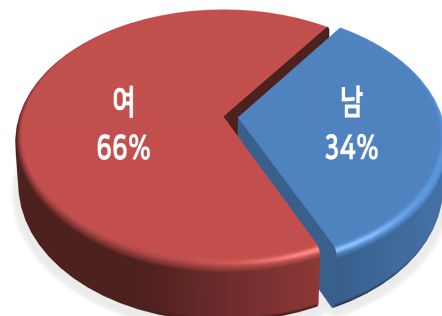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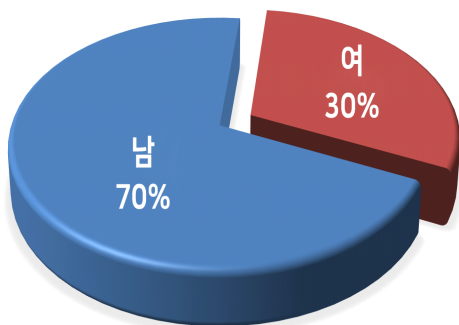
재직 분포			
(단위: 명)			
구분	남	여	합계
안수집사 (호칭장로 포함)	5,529	2,390	7,919
집사(권사 포함)	27,952	55,278	83,230

표8. 재직 분포표



2023년 안수집사(호칭장로 포함)

2023년 집사(권사 포함)



안수집사(호칭장로 포함)는 총 7,919명, 집사(권사 포함)는 83,23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여성 집사(권사 포함)가 27,952명(66.4%)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리더십이 교회 내에서 남성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수집사(호칭장로 포함)와 집사(권사 포함)는 교회의 일상적인 생활과 활동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침례교회의 성장**에 있어 중추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신앙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개별 **교회**, **지방회**, 그리고 **총회**가 협력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역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현재 세대에게도 교회의 건강한 **부흥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6.

교회 지역 분포 및 예배당 현황

교회 지역분포 및 예배당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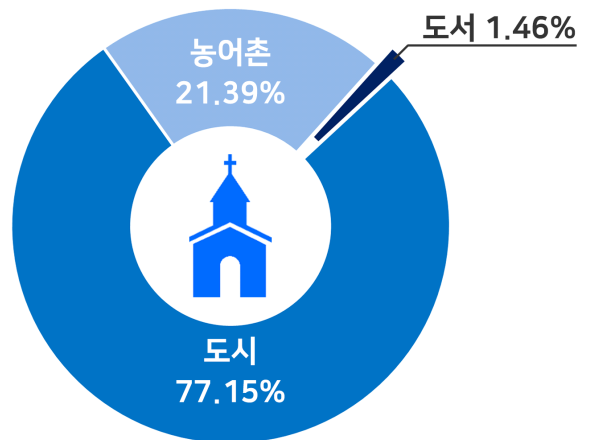
(단위: 개)

구분	자체건물	상가건물	가정교회	합계	자립	미자립
도시	928	823	204	1,955	1,192	763
농어촌	424	84	34	542	237	305
도서	17	11	9	37	14	23
합계	1,369	918	247	2,534	1,443	1,091

표9. 교회 지역분포 및 예배당 상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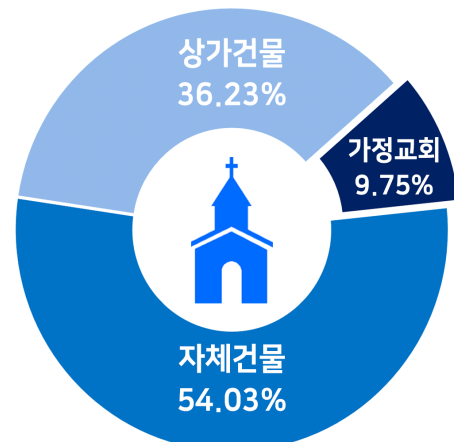
교회 지역 분포율

- (교회지역분포) 2023년 교단의 교회 중 도시 지역 1,955개(77.15%), 농어촌 지역은 542개(21.39%), 도서 지역은 37개(1.46%) 교회가 분포되어 있다.
- 전년도 교회 지역 분포율: 도시 지역 1938개(77.03%), 농어촌 지역 545개(21.66%), 도서 지역 33개(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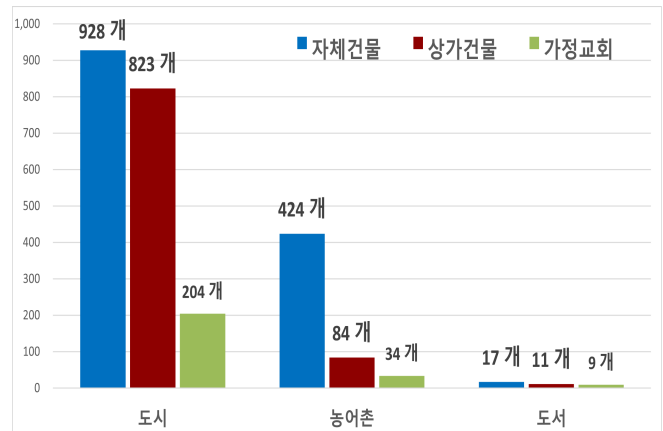
예배당 분포율

- (예배당현황) 예배당은 자체 건물이 총 1,369개 (54.02%), 상가 건물이 918개(36.23%), 가정교회는 247개(9.75%)이다.
- 전년도 예배당 현황: 자체 건물 1,326개(52.70%), 상가 건물 947개(37.64%), 가정교회 243개(9.56%)



지역별 교회 예배당 상황

□ 지역별 교회 예배당은 도시 지역의 자체 건물은 928개(47.48%), 상가 건물은 823개(42.10%), 가정교회는 204개(10.43%)이다. 농어촌교회는 자체 건물이 424개(78.23%), 상가 건물은 84개(15.50%), 가정교회는 34개(6.27%)이다. 도서 지역은 자체 건물은 17개(49.95%), 상가 건물은 11개(29.73%), 가정교회는 9개(24.3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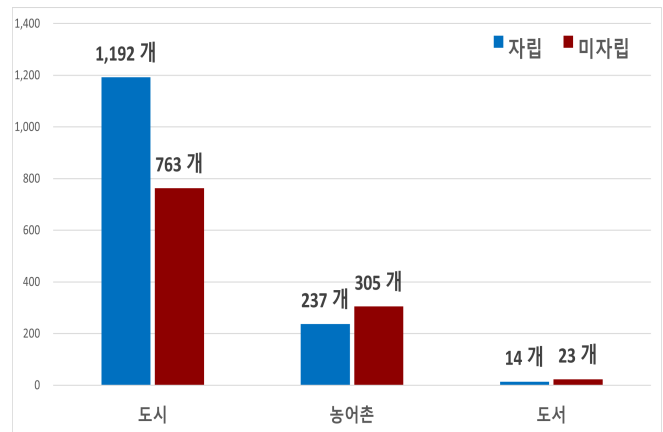


지역별 교회 자립도 구분

□ (지역별교회자립도) 교회 자립도는 도시 1,192개 (60.97%), 농어촌 237개(43.72%), 도서 14개 (37.84%) 교회가 자립교회이다. 미자립교회는 각각 763개(39.03%), 305개(56.27%), 23개(62.16%)이다.

○ 전년도 자립도 현황

- 자립교회는 도시 807개(41.64%), 농어촌 273개 (50.09%) 도서 21개(63.63%)
- 미자립교회는 도시 1,131개(58.36%), 농어촌 272개(49.91%), 도서 12개(36.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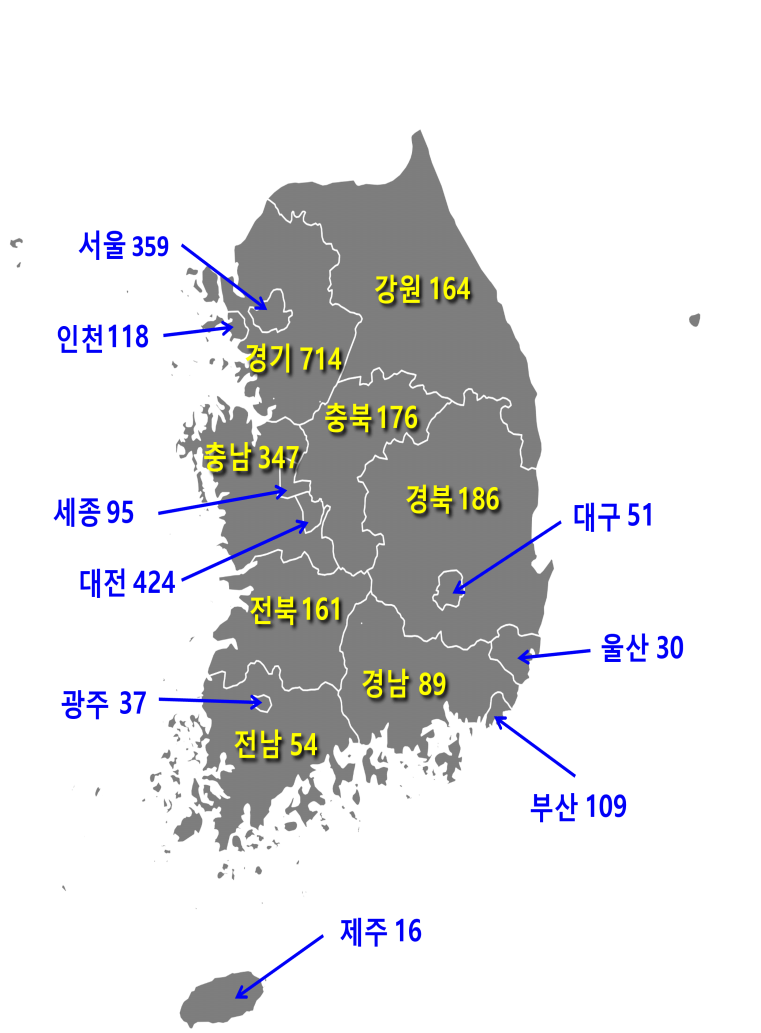
□ (지역별교회수) 지역별 교회는 그림과 같으며 총회 및 지방회 가입교회의 수는 총 3,135개(지난해 3,154개 ▽19개)이다.

지역별 교회 수

(단위: 개)

서울	359
경기	714
인천	118
강원	164
충북	176
충남	347
대전	424
세종	95
경북	186
경남	89
대구	51
울산	30
부산	109
전북	161
전남	54
광주	37
제주	16
기타/주소없음	5
합계	3,135

총회 및 지방회 가입교회



분석

교회의 지역적 분포는 인구가 밀집한 도시 지역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도시 지역에서의 교회 분포는 약 77.2%이다. 이는 농어촌이나 도서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에도 불구하고, 도시 지역에 소재한 1,955개의 교회 중 자체 건물을 보유한 교회는 928개(47.5%)에 불과하며, 상가 건물이 823개(42.1%), 가정교회가 204개(10.1%)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시 지역의 교회 중 높은 임대료 부담과 운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한 교회가 42.1%에 달하며, 많은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가정교회로 전환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542개의 교회 중 자체 건물을 보유한 교회가 424개(78.2%)이다. 상가 건물에서 운영되는 교회는 84개(15.50%), 가정교회는 34개(6.27%)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렇다고 농어촌 지역의 교회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자립률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도시 지역에서는 자립교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지만, 미자립교회의 수가 농어촌 지역보다 2.5배나 많은 것을 볼 때, 도시 지역도 교회 성장에 있어 어려운 환경임을 예측할 수 있다. 높은 임대료와 생활비, 경쟁 심화 등 도시적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농어촌교회를 여러 이유 들을 들어 **‘한국교회의 모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모판이 되는 교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지자체들은 귀농어촌인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2022년 통계에 의하면 한 해 동안 귀농어촌인은 **438,012명**이다. 동일 연도에 모 교단에서 (주)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농어촌교회 실태 조사 개요」에 의하면 귀농어촌인 가운데 **12%**는 **귀농 후 신앙**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의 교회들이 이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그 외에 교회의 자체 건물 등을 활용한 다양한 사역의 방안들은 역동적인 사역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정교회가 전년도 9.66%에서 **9.75%** 소폭 상승하였다. 이는 교회 **운영의 다양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다양한 형태의 **사역 모델**들을 찾아내고 바른 **교회론**을 연구해야 한다.

2023년 교세 보고서 제출에 협조해 주신 전국 침례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총회 가입교회의 80.83%에 해당하는 2,534개 교회가 협력하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교세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침례교회의 현재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 교세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교인 감소와 관련된 이해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교회가 교인 수가 감소했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올 때 무려 9.7%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전년 대비 0.16% 감소하였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교인 수 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교단의 교회는 지난해 교인 수가 많이 줄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전체 교회 수와 관련된 이해입니다. 2022년 대비 2023년 교회 수는 19개(0.6%)가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교단의 교회는 많이 줄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당 현황을 보면 가정교회가 지난해 대비 4개(0.9%)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미자립교회의 관련된 이해입니다. 도시 지역의 교회들은 미자립교회가 지난해 대비 19.33%로 줄었지만, 농어촌(+6.36%)과 도서 지역(+25.79%)은 미자립교회가 늘어났습니다. 출석 교인 기준으로 50명 미만 교회가 73.44%입니다. 목회자들의 절반 이상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담임 목회자와 관련한 이해입니다. 본 보고서를 통해서 담임 목회자의 연령과 성별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의 성별 비율은 남성이 90% 여성이 10%입니다. 연령별 분포는 남성의 경우 60세 이상이 49.86%이고, 여성 목회자의 경우는 57%입니다. 70세 이상은 남성은 12.1%, 여성 15%입니다. 반면 30~40대의 경우 남성 15.3%, 여성 8%입니다.

다섯째, 다음 세대 즉 20세 미만의 학생의 수가 소폭이지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9,118명에서 50,060명으로 총 942명 증가하였습니다.

여섯째, 수침자 수의 증가입니다. 재적 교인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수침자 수는 2021년 3,200명에서 2022년 6,107명과 2023년 6,462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얻어진 결과들을 토대로 **침례교단의 위대한 걸음을 위해** 교단 내 기관인 국내선교회, 한국침례신학대학교와 교회진흥원, 전국남선교연합회와 전국여성선교연합회 등, 위원회로 기획위원회와 다음세대부흥위원회 등, 본 자료를 각 기관과 위원회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19.17%의 미제출된 교회와 제출된 보고서 중 부실한 내용이 존재합니다. 2024년 교세 보고서는 더욱 많은 교회가 **동참**하고 **협조**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협력해 주신 모든 교회와 담임 목회자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협력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